

‘동선 광폭’ 전남 367번 발 연쇄 감염...슈퍼전파자 우려

367번과 같은 모임회원 확진 등 총 10명 연쇄 감염

시의원도 접촉,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시 중지

불안한 시민들 ‘367번 이동 동선 신속 공개 요구’ 봇물

전남367번(나주17번) 코로나19 확진자 발 연쇄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슈퍼전파자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나주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A(전남367번)씨와 직간접 접촉한 나주시역 주민 8명이 확진된데 이어 주소지를 광주에 둔 A씨 회사 직원 2명도 잇달아 확진돼 관련 감염자만 10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지난 18일 나주혁신도시(빛가람동)에 소재한 같은 모임 회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오후 7시께 회원 20명과 함께 저녁식

사를 했다.

당일 A씨는 증상이 발현됐지만 단순 감기로 알고 있었다. 그는 나주에서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하자 23일 진단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진됐다.

현재 A씨 발 나주시역 연쇄 감염자는 그의 아내와 초등생 자녀 2명을 비롯해 식당 주인 B씨 부부, 식당 손님 1명, 지인 1명, 마사지샵 주인 1명 등 5명이다. 이 중 2명은 같은 모임 회원이다.

여기에 A씨와 회사에서 접촉한 직원 2명도 확진돼 광주624·626번으로 분류됐다.

나주시보건소는 A씨의 초등생 자녀 2명이 확진되자 오늘(25일) 오전에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 800여명을 대상으로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A씨와 함께 모임을 가진 회원 중에는 활동 폭이 넓은 접촉자와 확진자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발 빠른 동선 파악과 접촉자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씨 발 연쇄 감염자 발생으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일시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시의원 중 한명이 A씨와 지난 18일 모임에서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가운데 확진된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난 20일 시의원 13명이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진단검사 결과 시의원들의 경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소 역학조사에 따라서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무 감사를 일시 중단한 채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잇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나주 지역 주민들은 A씨와 관련된 추가 동선과 그와 접촉후 확진된 추가 감염자 별 동선을 신속하게 공개하

고 접촉자들을 선제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제철소, 또 폭발 사고...1년새 10명 사상

벨브서 새어나온 고압산소 폭발로 근로자 3명 모두 숨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년여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안전 사고로 사상자 10명이 발생, 허술한 안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전남경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분께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선·제강 공장 사이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제철소 직원 1명과 협력사 직원 2명 등 총 3명이 숨졌다.

이들은 케이블 설치 작업 중이었으며, 산소 배관에서 고압산소가 새어나오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추가 폭발 위험을 고려해 현장 접근을 통제할 뒤 이날 오후 5시34분께 고압 산소를 차단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제철소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15분께에는 2차래에 걸쳐 광양제철소 내 페로망간공장 옆 시험 발전 설비가 폭발, 계열사 직원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폭발음은 인근 이순신대교를 지나던 차량 속에 들릴 정도로 컸으며 연기는 수십미터를 치솟았다.

또 폭발로 떨어져 나간 직경 1m 상당의 원형 부속 등 파편들이 인근 이순신대교 위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파고에 난간이 크게 휘었다.

이로 인해 이순신대교는 교통이 통제됐다가 40여 분만에 일부 도로 구간의 통행이 재개되기도 했다.

같은해 6월1일에도 제철소 내 니켈추출 설비 주변에서 용접 작업 도중 튀 불꽃에 의한 폭발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거



나 다졌다.

광양제철소 “산소 배관 설비 사고 깊이 사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4일 3명이 숨진 산소 배관 설비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광양제철소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제철소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직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광양제철소는 “24일 오후 4시께 광양제철소

내 산소 벨브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현장 작업자들께서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사죄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 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법관 평가 점수 최근 5년새 최하위

고압적 태도·재판 진행 미흡 등 하위 법관 5명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가 올해 진행한 광주지법 법관에 대한 평균 평가 점수가 최근 5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5년 사이 하위 법관에 대한 평균 평가 점수는 오른 반면, 전체 점수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재판의 전반적인 질(質)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올해 법관의 공정성, 품위·진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변호사 216명이 법관 353명(관외 법관 포함)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83.1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2015년 86.09점, 2016년 83.82점, 2017년 85.53점, 2018년 83.36점, 2019년 83.52점) 평가 점수 중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하위 법관으로는 5명의 법관이 선정됐다. 평가 점수가 낮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 예단 또는 강한 조정 권유, 증거 제출에 대한 면박 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재판 지연 진행, 비효율적 재판 절차를 비롯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항소를 제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위 법관 5명 중 2명은 4번째

(2015·2016·2019년·올해) 또는 2년 연속(2019년·올해) 뽑혔다.

광주변호사회는 올해 하위 법관 5명의 평균 점수(73.19점)가 최근 5년(2015년 67.78점, 2016년 59.86점, 2017년 72.75점, 2018년 73.59점, 2019년 71.29점)에 비해 오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위적인 재판 진행과 판결 이유의 불명확한 기재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위 법관에 평가 점수가 오른 반면 전체 점수는 떨어져 법원의 역할과 재판에 대한 변호사·국민의 기대가 컸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고, 법관의 대 국민 서비스의 진정성과 충실도를 객관·주목적으로 평가·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진절 법관으로는 7명이 뽑혔다. 광주지법 김정훈 판사(사법연수원 33기), 김지후 판사(32기), 노재호 판사(33기), 류중명 판사(32기), 이지영 판사(34기), 서봉조 판사(순천지원·31기), 장윤미 판사(순천지원·34기)다.

김지후 판사와 류중명 판사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우수·진절 법관으로 뽑혔다.

오유나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